

<2021년 10월 31일 주일말씀>

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

[시대 성경]

나 여호와와 성령과 주와 함께하리니,
나의 말을 지켜 행하여라.

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.
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되고 형통하리니,
항상 이를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
사랑하고 기뻐 감사하며 행하여라.

[여호수아 1장 7절]

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,
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,
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.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.

* 특히 <강조하는 말씀 부분>에서는 ‘제스처’를 해줘라.

* <추수감사절>의 의미를 되새겨주며,
늘 함께해 주시며 돕고 지켜주시는 삼위와 주께
감사와 영광을 돌리자고 전해줘라.

<서론>

- 하나님은 <그동안 우리의 행함>에 따라 말씀하시기를,

“내가 성령과 주와 함께하리니,
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되고 형통하리라.

<나의 말>을 지켜 행하며,
<육신>에 속해 너를 중심하여
‘좌우’로 치우치지도 말고, 흔들리지도 말아라.
그리하면,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.

이를 잊지 말고, ‘내가 하는 일’에 최선을 다하고
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해라.” 하셨습니다.

- 이 말씀이 금주에
 <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>이 ‘섭리사에 주시는 말씀’입니다.

-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,
 하나님은 <여호수아>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
 ‘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’을 해 주셨습니다.

하나님이 <그 보낸 구원자 모세>와 함께하셨던 것같이
<여호수아>에게도 함께하시기 때문에
잘되고 형통한다고 하셨습니다.

또, 하나님이 <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말씀>을 듣고 행하여
‘좌우’로 치우치지 말아야, 잘되고 형통한다고 하셨습니다.

그리고 항상 <하나님>을 잊지 말고, <성령의 감동>대로 행해야,
잘되고 형통한다고 하셨습니다.

- 이 말씀은 금주뿐만 아니라 <평생 동안 행할 말씀>입니다.

전체로 볼 때 <축복의 말씀>이고,
<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씀>입니다.

- 이 말씀을 받을 때, <열 가지의 말씀>이 왔습니다.

그래서 그 말씀들을 두고,
“이 말씀입니까?”, “저 말씀입니까?” 하고 하나하나 물었더니,
하나님은 “아니다.” 하셨습니다.

- <말씀>을 받을 때는 정말 애간장이 타고,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.
<말씀>이 선포되면, ‘그 말씀’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.

<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>은
‘섭리사’ 뿐만 아니라 ‘전 세계’ 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.

- 하나님은 <우리의 행함>을 보시고,
우리가 행하는 대로 ‘말씀’ 을 주시기 때문에
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

그렇다고 ‘좋은 말씀’ 만 달라고 할 수도 없고,
애타는 마음으로 ‘하나님의 처분’ 만 기다리며,
‘겸허한 마음과 자세’ 로 우러러 쳐다보며 받습니다.

- 이렇게 하다가, 결국 <말씀>이 왔습니다.

선생님은 <말씀>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,
한참 동안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.

“하나님, <축복의 말씀>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.

잘 풀어 정리해서 <섭리사 전체>에 전해 주어
전하는 자들이 잘 전하게 해 주고,

<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>을 잘 듣고,
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겠습니다.”

- 하나님은 선생님이 말한 것을 들으시고, “알았다.” 하셨습니다.
- <말씀 본문>을 받고 새벽에 운동장을 걸으면서 생각해 보니,
지난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셔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.

오늘 본문 말씀대로,
<하나님이 함께하심>이 정~말로 믿어졌습니다.

지난날 하나님은
<나>뿐만 아니라, <시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>,
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>을
늘 잘되고 형통하게 해 오셨습니다.

- <하나님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 사건들>이
너~무나 많이 떠올랐습니다.

- ▶ <죽음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>과,
- ▶ 경제의 어려움에 처해 가난 속에 뛰던 때
축복해 주셔서 <교회를 사게 하신 것>과,
- ▶ <월명동>을 개발해서 천국같이 만들어 놓게 하신 것과,
- ▶ 모두 어렵게 지냈지만
지금은 <찬란하게 잘되게 해 주신 것들>과,
- ▶ <각자 개인마다 돕고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신 것들>이
끝없이 떠올랐습니다.

- 그래서 “하나님, <과거>도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,
<현재>도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.

그리고 <앞으로도> 늘 함께해 주신다고 하신
‘전능자 하나님’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” 고백했습니다.

- 또 고개를 들어 새벽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하기를,

“하나님, 성령님, 이 말씀은 <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>입니다.

<하나님의 말씀>은 늘 우리에게
‘생명의 말씀’입니다. ‘최고 소망의 말씀’입니다.”

하고 혼자 진실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.

- 그리고 <말씀을 쓰는 장소>에 들어와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

- **내가 너와 함께하리니,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.**

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심은

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이

<시대 보낸 구원자>와 함께하시니 이를 잊지 말고,
걱정 말고, 염려 말고,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.

또한, 요즘에 <섭리사 전체>가

새벽 1시, 혹은 기타 시간들을 내서

섭리사의 염려와 걱정들을 놓고 최고로 기도들을 하니,
이 말씀이 온 것입니다.

<본론>

<영상1>

-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<신광야 시대-모세 때>도,
<가나안 복지 정복시대-여호수아 때>도

“나 여호와가 함께하리라.

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리라.” 하시면서

용기를 주시고, 담대하게 행하게 하셨습니다.

<여호수아 군대>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,

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말씀으로 ‘힘’을 얻고 열심히 싸워서
승리했습니다.

-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가 <여호수아>를 중심으로 싸우듯이,
우리도 <하나님이 보낸 시대 구원자>를 중심으로
'악한 자'와 '흑암'과 '우리를 겨누는 자'와 싸우고 있습니다.

<생활 속>에서 늘 '악'과 싸우면서
'신앙의 삶'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,
<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>은
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.
 - ▶ 늘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,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며,
<내 말>을 지켜 행해라.
 - ▶ <어떤 일>이 있어도 '그 말'을 듣고, '그 환경'을 보고
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, 흔들리지도 말며,
오직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를 절대시하고 살아라.
- 그러면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니,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.

<끝>

- <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>과
<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>과
<우리의 구원자, 주가 어디서나 함께한다는 것>을
절~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.

그로 인해 ‘힘’ 을 받고,

<기도하는 것>도 기뻐하며 열심히 하고,

<저마다 처한 일들>도 기뻐하며 열심히 해야 됩니다.

- 하나님은 <우리와 함께하며 정녕코 승리하게 해주고,
잘 되고 형통하게 해 준다는 말씀>을 수시로 해 주셨습니다.

그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잘되고 형통해 왔고,

지금 ‘잘된 현실 속’ 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.

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,

<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>로서

‘용기’ 를 가지고 담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.

- 이 말씀은 우리 기분이 나쁘다고,
<기분이 좋으라고 해 주신 말씀>이 아니고,
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고 살다가,
<시대의 어려움>에 처해 힘들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
‘용기’ 를 주시고, ‘힘’ 을 주시기 위해

“내가 책임지겠다.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.

다만, 너희가 <지킬 것>만 지켜라.

<육적>으로 치우쳐 좌우로 흔들리지도 말고,

<어떤 말>을 들어도, <어떤 환경>이 와도

오직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만 의지하고 함께 행해라.”

하신 <생명의 말씀>입니다.

- 살다 보면,

〈어려움〉도 많고, 〈힘든 일〉도 많습니다.

또 섭리를 뒤다 보면,

〈섭리사적으로 오는 환난과 뽀박과 어려움〉도 많습니다.

그럴 때마다 〈하나님〉은

〈자기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〉에게

항상 “내가 너와 함께하니,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.”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,

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시어,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.

이를 깨닫고,

〈섭리사 모든 사람들〉이 굳건하고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.

- 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〉가

늘 함께해 주시고,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니,

〈우리〉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,

〈우리의 할 일〉을 담대하게, 열렬하게 행해야 됩니다.

- 우리가 〈표적〉을 일으켜야,

하나님도 이를 발판으로 ‘더 큰 표적’을 일으켜 보이십니다.

- 오늘 말씀을 또 잊지 말고,

〈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것〉을 절대 믿고,

감사하고 사랑하며 굳건하게 행해야 됩니다.

그래야 ‘걱정’ 과 ‘근심’ 과 ‘염려’ 와 ‘두려움’ 이 없어지고,
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, 흔들리지 않습니다.

<영상2>

- <이스라엘 백성들>이

‘여호수아’ 를 중심해서 ‘가나안 복지’ 에 들어갈 때,
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

“너희는 <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>을 다시 지켜 행해라.

<그 말씀>을 듣고 ‘좌우’ 로 흔들리지 않고 행한다면,

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. 너희와 함께 싸워 주리라.

너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리라.” 하셨습니다.

그 말씀대로

<이스라엘 백성들>은 ‘여호수아’ 와 ‘하나님의 말씀’ 을 중심하여
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고, ‘가나안 복지’ 를 차지했습니다.

- 이 시대의 우리들도

<하나님이 보낸 사명자>를 머리 삼고,

<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>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고,

<그 지체>가 되어 ‘의’ 로 담대히 싸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.

결국, ‘세상’ 과 ‘악’ 과 싸워 승리하고,

<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천 년 역사>를
차지하고야 말았습니다.

<끝>

- <본인>이 행해야, <본인>이 승리합니다.
- <본인>이 행해야,
<하나님>도 <성령님>도 인정하시고 함께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.
- 항상 <삼위와 주>와 함께해야, 승리하고 잘되고 형통합니다.
- 성경을 보면,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와 <그 보낸 자와> 함께하며,
<그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>은 모두 잘되고 형통했습니다.

<노아>도 <아브라함>도 <요셉>도
그리고 <그 민족>도 모두 잘되고 형통했습니다.

그러므로 <어려움>이 있을 때마다,
<하나님>을 ‘더 의지’ 하고, ‘더 믿고’ , ‘더 기도’ 하고,
‘말씀’ 을 더 담대히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.

- 사람은 <일>이 안 될 때, 혹은 <어려움>이 있을 때
걱정하고 근심하며 주저앉게 되고, 낙심하게 됩니다.

사람은 <마음>도 약하고, <몸>도 약하기 때문입니다.
자신이 겪어봐서 압니다.

그러므로 <어떤 어려움>이 오면,
걱정되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.

“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?”

“우리가 잘못해서 함께하지 않으시나?”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.

그러다 낙심해서 쓰러지게 되고,
마음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게 됩니다.

- <사람의 심리>가 그렇습니다.

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해서 ‘마음’이 아예 꺾이고,
무서워서 ‘행실’을 안 하게 됩니다.

그러나, 그럴수록 더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됩니다.
그래야 ‘힘’을 얻고 ‘자신감’이 생깁니다.

- <자기>를 중심할 때마다, <자기>를 의지할 때마다,
더욱 불안하게 되고, ‘걱정할 일’이 생기고,
‘환난’과 ‘핍박’과 ‘어려움’에 부딪히고,
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쓰러집니다.

- 우리는 <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>을 하고 있습니다.

‘그 일’을 이루면서 오직 <절대자 하나님>을 의지하며,
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!

- 사람은 자기가 ‘약할 때’ 나, ‘어려움을 당할 때’, <강한 자>가 자기와 함께해 주기를 원합니다.

그래야 ‘마음’ 이 놓이고, ‘걱정’ 이 안 되고,
‘어려운 문제’ 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- 그런데 <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>이
함께하시어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도,

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행하지 못하고,
‘실감’ 을 못 합니다.

왜 그럴까요?

사람은 <눈에 보이는 것>을 중심하기 때문입니다.

-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, ‘어린아이’ 라도, ‘친구’ 라도
옆에서 직접 이야기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더 실감합니다.

그만큼 <영적>이지 못하고,

그만큼 <눈에 보이는 것>을 중심하기 때문입니다.

진실로, 진실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는
절대적인 정신과 생각을 갖는다면,

<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>이 믿어지고, 실감 나고,
담대하게 행하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하나님이 왜 도우시는지 깨달아라.”

- <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>에 대해
하나씩 말씀해 줄 테니, 이를 절대 믿고 깨닫기 바랍니다.
- 첫째, 하나님은 <우리>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십니다.

그런데, ‘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’ 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,
<상대>도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기뻐 따르기 때문에
도와드립니다.

하나님께 <전지전능하심>이 있어서
우리를 도와주신다고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.

사람을 봐도 <도울 수 있는 능력>이 있어도,
‘안 돕는 자’ 는 절대 안 돕습니다.

- 둘째,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,
‘그 사랑의 대상’ 이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?

바로, 우리가 <하나님의 것>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사랑하며
‘우리가 가는 길’ 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.

- 셋째, 우리가

<하나님이 원하시는 길, 시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길>을 가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함께하십니다.

- 넷째,

<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영>을 만드는 ‘육’ 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.

- 다섯째, 우리를 돕고 함께해 주셔야,

<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것>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

<전지전능하신 하나님>은

‘삼위의 능력과 권세’ 를 다 행하기까지 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돕고 함께해 주십니다.

- 여섯째,

<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룬 모든 재산>이 ‘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’ 에게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,

하나님은 <자신의 재산>을 지키기 위해

‘흑암의 세계’ 도, ‘막는 세계’ 도, ‘해하는 세계’ 도 이기도록 절대적으로 돕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!

- <삼위와 주>와 같이 살아가도,

<자기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>을 믿지 않으면

평~생 동안 모르고 삽니다.

- <삼위와 주가 함께해 주시는 것>을 안 믿을 때,
‘마음’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약해지고 걱정됩니다.
- <우울증에 걸린 사람>이나, <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>을 보면,
‘불안정한 생각’ 과 ‘필요 없는 걱정’ 만 하며 불안해합니다.

‘누가 쫓아온다.’ , ‘누가 죽이러 온다.’
‘차 타면 사고 나겠다.’ , ‘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추락하겠다.’ ,
‘걸어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겠다.’ ,
‘금방 죽을 것만 같다.’ 하면서
방안에서 이불만 뒤집어쓰고 있습니다.

어떤 사람은 추운 겨울철에도
밖에 나가면 모기가 물어뜯는다고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

이런 걱정들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습니다.

- <신앙인들>도 너무 걱정 근심하면,
이렇게 ‘생각’ 이 꼬그라들어 버립니다.

그러므로 우리는 <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>을
절대 믿고 행해야 됩니다.

- 오늘 “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. 너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.”
하신 말씀을 절대 믿어야,

<잡념>도 <사탄의 주관>도 <어떤 불안한 세계의 일들>도
짜~! 없어집니다.

- 오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도록
성령의 감동 감화 뜨거운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
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
<말씀 마무리>

-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<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>을
다시 한 번 전해 주면서,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-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,
<전능하신 하나님>을 믿고 ‘그 뜻’ 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기에,
하나님은 항상 ‘그 어려움을 이기는 말씀’ 을 주셨습니다.
- 하나님은 <여호수아>에게 말씀하시기를,
“<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준 율법>을 잘 지켜라.
그러면 잘되고 형통하리라.

<말씀>으로 ‘승리’ 하는 것이다.
<말씀을 지킴>으로 ‘사탄’ 을 이기고,
‘자기와 다투는 자’ 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.

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니라.” 하셨습니다.

-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<주>를 통해 말씀하시기를,

“나 여호와가 참으로 너희를 돕고 함께하리라.

내가 섭리사와 시대 보낸 자와 함께하리라.

<주를 통해 준 말씀>을 잘 지켜 행하며,

<두려운 말>, <걱정되는 말>에

‘좌우’로 치우치지도 말고, 흔들리지도 말아라.

오직 <나 여호와의 말씀>만 믿고 행해라.

그러면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니,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.”

하셨습니다.

-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,
즉시! 더욱 힘 있게, 찬란하게 행해 주십니다.
믿습니까? 아멘.

- <사람>도 ‘자기가 말한 것’을 안 지키면,
속상하고 도와주고 싶지 않듯이, <하나님>도 그러하십니다.

또 <사람>도

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따르고,

‘대화의 대상’, ‘사랑의 대상’, 혹은 ‘자기 목적의 대상’이 되어주고

‘심정의 대상’이 되어주면, 돕고 함께하며 형통하게 해 줍니다.

이러한 <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>을 알고,

섭리사 모두가 ‘오늘 말씀’을 절대 믿고 행해야 됩니다.

- 하나님은 도울 때, 거의 직접 도우십니다.

〈생명〉은 ‘하나님만’ 이 다룬다고 하셨기에 그러합니다.

또한, 하나님은 〈사람〉을 통해서 돕기도 하십니다.

- 노아 때는 〈노아〉를 통해

‘노아의 가정’ 과 ‘그 시대 사람들’ 을 돕고 구원시키셨습니다.

아브라함 때는 〈아브라함〉을 통해

‘그 자녀와 후손들’ 을 돕고 함께하며, 형통하게 하셨습니다.

또 요셉 때는 〈요셉〉을 통해

‘그 형제들’ 과 ‘백성들’ 을 돕고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습니다.

신약 때는 〈메시아 예수님의 육신〉을 쓰고,

그 시대를 돕고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.

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〈선지자〉와 〈중심인물〉을 통해

‘그 시대의 사람들’ 을 잘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.

- 이 시대도 〈하나님이 보낸 구원자〉를 쓰고,

그를 통해 ‘이 시대의 사람들’ 을 돕고 함께하시며,

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.

그 전수가 ‘수백, 수천만 건’ 입니다.

하나님은 개인 한 명 한 명, 그리고 부서별로, 각 분야별로

〈도와야 될 필요성〉이 있을 때마다 돕고 함께해서

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.

- 하나님은 <말씀>으로도 도우시고, <찬양>으로도 도우셨습니다.

그때에 해당되는 <생명의 말씀>을 주셨고,
시대 사명자에게 <노래>를 ‘400곡’ 이나 주어 부르게 하시고,
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.

또한 <경제적>으로도 ‘잘되는 길’ 을 깨닫고 행하게 하심으로
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.

-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
섭리역사 43년이 넘도록 불철주야로 돕고 함께해 주셨고,

특히 ‘어렵고 힘든 때’ , ‘환난 때’ 돕고 함께하시어
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

<하나님>이 ‘직접’ 관여해서 돕기도 하시고,
<천사>를 사역자로 삼고 돕기도 하시고,
<시대 사명자>를 통해 돕기도 하시고,
<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>을 통해 돕기도 하시며
우리를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.

<항상 떠나지도 않고, 돕고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>대로
행해 주신 것입니다.

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,
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, 담대히 행하기 바랍니다.

-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,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.
이 말씀을 <절대적인 증거물>로 삼고,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.
- <하나님의 말씀>이 ‘힘’ 이요, ‘능력’ 이요, ‘권세’ 입니다.
<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자의 말>이니, 절대 믿고 행해야 됩니다.
- 하나님이 <월명동의 삭막한 골짜기>를 <하나님의 자연성전>으로
‘천국’ 같이 만들어 잘되고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,

<개인>도, <섭리사 전체>도 돕고 함께하여
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.

저마다 <과거에 하나님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 것들>을
깨달아야 됩니다.
-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
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,

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충만하여,
이 말씀을 믿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.